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꿈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내면세계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정 한 나

꿈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내면세계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정 한 나

인 준 서

정한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현대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빈곤에서의 해방을 이루었으나, 정신적 빈곤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효과로 인해 현대인들은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대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이 현실을 초월하는 무의식의 공간인 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본인의 꿈에서 드러난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꿈이 평상시에는 인지 할 수 없는 잠재된 내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현실 속에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은 욕망이 꿈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자아로 드러나고, 평소 억제되어 있던 욕망들이 꿈에서 여러 가지 단상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꿈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억제된 욕망의 표현이라 생각하였고, 그러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잠재의식을 시각화 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 하는 통로로 삼고자 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단순히 자의와 관계없는 미지의 세계로 여겨지는 꿈에 대해 객관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꿈이 어떠한 의미로 정립되어 왔는지 꿈에 관한 여러 이론들 중 프로이드와 융의 의견을 기초하여 꿈을 자의와 의식적인 목적에서 독립된 잠재의식의 보상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꿈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두 번째로, 꿈을 소재로 한 회화적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동양에서 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중국의 역사 속에서 그 원류를 찾아보았으며, 더불어 꿈과 관련된 고사와 회화 작품들을 통해 동양인들이 꿈을 어떻게 받아 드려왔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양에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과 더불어 발달한 초현실주의의 전개 과정과 그 기법들을 통해 꿈이 회화적인 소재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꿈의 관한 해석과 표현들이 본인 작품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꿈에서 드러나는 날개, 미지의 공간,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이미지들의 상징성과 내면세계의 연관성을 찾고자 했으며, 본인 작품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인 특징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꿈을 소재로 한 본인의 작품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함으로써 막연하게 작품소재로 사용되었던 꿈에서 벗어나 내면세계의 새로운 발견을 창출해 내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4
II. 본론.....	6
1. 꿈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6
2. 꿈에 관한 이론과 미술적 해석.....	8
1) 꿈에 관한 이론.....	9
2) 동양에서의 꿈의 해석.....	11
3) 서양에서의 꿈의 해석.....	13
3. 본인 작품 분석.....	16
작품 목록.....	25
작품 도판.....	26
III. 결론.....	35
참고 문헌	
ABSTRACT	

I. 서론

꿈(夢 Dream)은 오래 전 부터 인간의 수면시간을 함께 해 왔다. 그 내용이나 길이 또한 개인의 문화적 환경이나 취향, 관심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꿈은 아직 우리의 의식 세계가 닿지 않은 무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유년 시절부터 반복 되어온 꿈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무의식을 반영하는지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꿈이 제한된 현실에서의 도피와 욕구를 무의식중인 수면 중에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을 정신분석학 입장과 분석 심리학 입장에서 꿈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하프너(P. Haffner)는 “꿈은 낮 생활의 연속이다. 우리의 꿈은 언제나 최근의 의식 속에 존재 했던 표상과 연결 된다. 그러므로 꿈은 정확하게 관찰하면 거의 언제나 전날의 체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베이간트(W. Weygandt)도 “꿈은 우리를 일상생활에서 해방시키기는 커녕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모리(L. F. A. Maury)는 <수면과 꿈>에서 “우리는 낮 동안에 보고 말하고 생각한 것을 꿈꾼다.”라고 말했다.¹⁾

이와 같이 꿈은 분명히 무의식중에 자아를 반영하고 있으며, 꿈을 소재로한 작품 활동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꿈에서 드러나는 여러 이미지의 상징성을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내면세계가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I 장은 꿈에 관한 해석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고대인들이

1) S.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역) (열린 책들, 1997), p29.

갖던 꿈에 대한 생각부터 근대 프로이트의 꿈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서술하고 무의식중에 표출되던 꿈이 의식세계로 넘어올 때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논하였고, II 장에서는 꿈의 관한 이론적 배경을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러한 이론들이 회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동양에서 꿈의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꿈과 관련된 고사와 미술 작품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또한 서양의 초현실주의를 들어 꿈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을 알아보았다. III 장에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을 소재로 한 본인의 작품활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작품의 사용된 상징적인 이미지들의 의미와 출처를 밝히며,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Ⅱ. 본 론

1. 꿈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꿈의 해석에 대한 역사는 고대 B.C 3000-4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점토들로 미루어 볼 때,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꿈과 현실을 구분 짓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로 기록으로 전해진 꿈은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한다. 토기 판으로 전해지는 길가메시의 꿈이 그것인데 그는 그의 꿈을 신의 계시로 해석하여 현실 세계에서 변화를 꾀하였다.²⁾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꿈이라는 것은 대개 그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한 어떤 예언이나 전조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여기고 꿈을 단지 신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고대 후기의 꿈 해석의 최고 권위자는 앞에서 언급한 길가메시의 토기 판을 발견한 달디스(Daldis)의 아르테미도로스(Artemidorus)³⁾였다. 그는 그의 저서를 위해 당시의 문명세계를 찾아다니며 꿈에 관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모았다고 한다. 학문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인들의 꿈에 대한 견해는 정신생활에 실재하는 것만을 실재로서 외부 세계에 투영하곤 했던 그들의 총체적 세계관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들에게 꿈은 다른 세계에서 유래하는 낯선 것으로 나머지 심리적 내용과 대립관계로 여겨졌다.⁴⁾

이러한 추상적이었던 꿈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고 학문

2) 베레나 카스트, 『꿈 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 원석영(역) (프로네시스) pp15.

3) 아르테미도로스 (Artemidoros, ? ~ ?) : 소아시아의 에페소스 출생. 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꿈풀이[解夢]》에 대한 논문(현존)을 저술한 외에도 《새점[鳥占]》《수상술[手相術]》에 대한 저서도 있어 고대의 민족 연구에 중요한 인물이다.

4) S.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역) (열린 책들, 1997), pp24~25.

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초기에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⁵⁾를 시작으로 그의 제자 칼 융⁶⁾ 1900년대 중반 에리히 프롬⁷⁾을 거쳐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오늘 날 꿈의 관한 입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칼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 인지 발달론적 입장에서의 피아제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⁸⁾ 이러한 관점들 중 현실세계에서 억제된 감정과 욕구가 무의식중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피기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칼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무의식의 꿈의 세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
- 5) 프로이트 (Freud, Sigmund, 1856~1939) : 모리비아(현재 체코) 프라이 베르크 출생. 빈 대학 의학부 졸업 후 얼마동안 뇌의 해부학적 연구, 코카인의 마취작용연구 등에 종사하였다. 1889년 여름에 낭시(프랑스)의 베르넬과 레보 밑에서 최면술을 보게 되어, 인간의 마음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J.브로이어는 히스테리 환자에게 최면술을 걸어 잊혀져 가는 마음의 상처(심적 외상)를 상기시키면 히스테리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공동으로 그 치유의 방법을 연구, 1893년 카타르시스(Katharsys:淨化)법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치유법에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최면술 대신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하고, 1896년 이 치료법에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은 후에 그가 수립한 심리학의 체계까지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1900년 이후 그는 꿈, 착각, 해학 과 같은 정상심리에도 연구를 확대 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그의 학설은 처음에는 무시되었으나, 1902년경부터 점차 공명하는 사람들(슈테켈, 아들러, 융, 브로일러)이 나타났으며, 1908년에는 제 1회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개최되었다. 1차 세계대전 후 사변적 경향을 강화하여 이드(id), 자아, 상위자아(上位自我)와 같은 생각과,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라는 설을 내세웠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나치스에 쫓겨 런던으로 망명하고, 이듬해 암으로 사망하였다. 20세기의 사상가로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으며, 심리학 · 사회심리학 · 문화인류학 · 교육학 · 범죄학 · 문예비평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주요 저서에는 《히스테리의 연구》(1895) 《꿈의 해석》(1900) 《일상생활의 정신병리》(1904) 《성(性) 이론에 관한 세 가지 논문》(1905) 《정신분석입문》(1917) 《자아와 이드》(1923) 등이 있다.
- 6) 융 (Jung, Carl Gustav, 1875~1961) : 바젤 출생. 바젤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후 1900년 취리히 대학 부속 부르크 훔츨리 정신병원의 E.블로일러 교수 밑에서 정신의학을 전공 하였다. 1904년경 정신 분석의 유효성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연상실험을 창시하여, S.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을 입증하고, ‘콤플렉스’라 이름붙였다. 1908년 4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정신분석학회의 제창자가 되었으나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을 성적(性的)이 아닌 일반적 에너지라고 하였기 때문에 프로이트와 의견이 대립되어, 1914년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하고, 그 이후 자신의 심리학(분석심리학)이라 일컬음을 수립하는데 노력하였다.
- 7) 에리히 프롬(Fromm, Erich, 1900~1980)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출생.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대학교,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이 후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S.프로이트와 K.마르크스의 영향하에 출발한 한 프롬은, 현대에 와서 일반화되어가는 신경증상이나 정신적 불안은 개인적인 정신분석 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학파에 프로이트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그 나름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 8) 김종현, 『신비한 꿈의 세계』, (서울: 범조사, 1989), p.10.

다음으로 꿈의 상징⁹⁾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꿈은 대부분의 경우 질서가 결여되어있으며 이해하기 어렵다. 꿈-구성 자체에 기억될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이 없으며 대개 다음 순간 와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잊혀진다.¹⁰⁾ 이러한 꿈을 시각화 하는데 있어서 인간 개인적, 주관적인 개념과 상상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꿈의 상징이기도 한다.

또한, 상징적 관계란 꿈의 요소와 그 번역 사이의 일정하고 불변한 관계를 말한다. 즉, 꿈의 요소 그 자체가 꿈의 무의식적인 관념의 상징인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은 깨어 있을 때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징을 그 꿈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징의 지식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이며, 상징은 그 사람의 무의식의 정신생활에 속한다는 것만을 주장 할 수 있다.¹¹⁾

프로이트는 꿈 상징의 명백한 원인이 억제와 욕구충족이라고 했으며, 융은 꿈의 상징은 인간의 마음의 본능적인 부분으로 부터의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내지는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자이면서 상징은 원물(原物)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작가 본인의 관념, 사고, 상상 등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내야 한다. 무의식 상의 꿈이 가지는 상징을 작품 내에서 독창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9) 상징 (symbol, 象徴) : 어떤 것이 그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기호(sign)와는 달리, 상징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

10) S.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역) (열린 책들, 1997), p73.

11) S.프로이트, 『정신분석 입문』, 이명성(역) (홍신문화사, 1987), p.128.

2. 꿈에 관한 이론과 미술적 해석

(1) 꿈에 관한 이론

프로이트의 연구에 의하면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체계적이며,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몸과 세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힘을 이드(id)¹²⁾라 하여 무의식을 정의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의식적인 생활을 통제 하고 있다. 그것을 프로이트가 현실 원리 (Reality-Principle)라고 부른 과정에 의해 조절 되고 있다. 즉 우리의 의식에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고 보충한다.¹³⁾

프로이트는 인간의 인성(Personality)에는 세 가지 주요 체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위 이드(id)와 자아(ego)¹⁴⁾, 그리고 초자아(superego)¹⁵⁾이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인성의 내부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드는 욕구나 충동이며, 자아는 주체로서의 자아, 초자아는 사회생활에 의해 내면화된 행위 기준으로서의 문화이다. 그 중에 이드는 무의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간의 심리도 의식적으로 통제 할 수 없는 미지의 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생득적(生得的)인 충동,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을 말한다. 따라서 이드는 본능이 자리하는 진정한 심리적 실체로서 원초적인 주체이며 개인이 외부세계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

12) 이드(id) : 본능적 에너지, 리비도(libido)의 저장고이며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는 쾌감원리(快感原理)만을 따른다. 여기서는 도덕도 선악(善惡)도 없으며 논리적인 사고도 작용하지 않는다. 시간관념도 없고 무의식적이다. 어린아기의 정신은 거의 전부 이드로 이루어졌는데, 뒤에 이 이드의 일부가 외계와 접촉 변화하여 자아가 형성된다.S.프로이트는 이드를 독일어로 에스(Es)라고 하였다. Es는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것을 영역(英譯)할 때 자아(自我)를 에고(ego)라고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므로 it에 해당하는 라틴어 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13) Herbert read, 『현대 미술의 원리』, 김윤수(역) (서울:열화당, 1981),p112.

14) 자아(自我, ego) :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

15) 초자아(超自我, superego) : 정신분석의 인격이론(人格理論) 중 구조론(構造論)에서 인격의 사회가치·양심·이상(理想)의 영역. 상위자아(上位自我)라고도 한다. 구조론에서는 인격을 하부(下部)의 충동·본능영역의 이드(id)와 의식적 주체(意識的主體)의 중핵(中核)이 되는 자아, 그리고 초자아의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초자아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는 내부 세계인 것이다.¹⁶⁾

잠들어 있을 때의 무의식은 의식의 검사를 받은 뒤 변형, 상징화 되어 꿈으로 나타는 것인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억압된 소망이 나타난 것으로 꿈이란 꿈을 꾸 당사자가 완전히 인간이 이성적 사고의 지배를 받을 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¹⁷⁾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은 한번 억압된 것, 즉 현실에서 의식적으로 한번 경험한 것이 억압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꿈은 현실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으며 어떠한 꿈을 꾸었든 깨어있을 때 사고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융은 인간의 정신을 무의식과 의식이 상호작용하는 생기는 심리 작용으로 보았고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personal-unconscious)과 개인을 넘어선 인류공통의 누적된 체험이 담긴 집단 무의식(collective-unconscious)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융의 이론인 분석심리학에서는 꿈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image)마다 개념을 부여한 프로이트와 달리 확충 방법(a method of amplificat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꿈을 꾸 사람의 상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연상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연상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연상과 확충의 이중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꿈의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⁸⁾

이처럼 무의식이 표출 되는 꿈은 원초적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심리의 근원적 영역이며, 실제 생활에 예지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꿈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은 예술가의 무의식과 의식이 조화

16) Calvin 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지경자(역), (서울:홍신출판사, 1994),pp.15ff.

17) E .프로, 『꿈의 정신분석』, 한상범 (역), (서울: 정음사, 1977), pp.66-69

18)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일조각, 1981), pp.187-190

된 정신의 표현이며 예술가의 내면세계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2) 동양미술에서의 꿈의 해석

동양미술의 큰 흐름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꿈에 의미를 해석해보며, 동양에서의 꿈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 중국에서의 꿈에 대한 탐색은 그 원류가 오래되고 역사가 길다. 멀리 선진시대의 저명한 학자들은 꿈에 대해서 이미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측면으로부터 꿈에 대한 연구는 횡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었고, 종적으로 끊임없이 그 깊이를 더하였다. 근대의 서양문화가 중국에 유입되기 전, 고대의 중국에는 꿈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자신의 특수한 방향과 특수한 방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독자적인 어떤 특수한 이론과 특수한 범주를 제시해 주었다.¹⁹⁾

예를 들면 <황제내경>에서의 '음사가 꿈을 일으킨다.'는 학설이나 <주례>에서 제시한 '여섯가지의 꿈'에 관한 학설, <열자>속에 나타나 있는 '정이 변하여 왔다 갔다 한다.'는 학설, 방이지의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제어를 받고, 잠을 자게 되면 숨어버린다.'는 학설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서양의 전통적인 꿈의 학설이나 이론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²⁰⁾

꿈의 본질에 대한 고대 중국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먼저 꿈이라는 것이 사람의 꿈이며, 또 사람의 어떤 특수한 활동으로 귀신과는 무관

19) 유문영, 『꿈의 철학- 꿈의 미신, 꿈의 탐색』 하영삼 (역)(서울 : 동문선, 1993), p.237.

20) 유문영, 『꿈의 철학- 꿈의 미신, 꿈의 탐색』 하영삼 (역)(서울 : 동문선, 1993), p.238.

한 것임을 견지하였다. 그 다음은 꿈의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구별에 대해 수많은 비교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뜻이 숨겨져 있다.' 거나 '정신이 감추어진다.' 거나 '정신이 침거한다.' 는 등의 개념으로부터 꿈의 <잠재적 의식>의 내면세계를 접촉하게 됨으로서, 꿈이란 일종의 특수한 정신 상태와 특수한 정신적 활동임을 인식하게 되었다.²¹⁾

동양에서 꿈에 관한 대표적인 설화로는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이 있다. '호접지몽'(胡蝶之夢), 즉 '나비가 된 꿈'은 장자의 <제물론편>(齊物論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지난 어느 날 장주는 꿈에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다. 스스로 유쾌하여 마음대로 노닐면서 그 자신이 장주인 줄은 모르다가 조금 뒤에 문득 깨어 보니 곧 분명한 莊周였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장주의 꿈에 나비로 되었던가? 나비의 꿈에 장주로 되었던가? 그러나 장주는 장주요, 나비는 나비로서 반드시 구별이 있으니, 이것을 일컬어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스스로 유쾌했던 이유는 실제로 자신이 장주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꿈에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본래의 장주임을 알았다면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즉, 장자는 꿈과 현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오는 무상의 환희를 느낀 것이다.

꿈의 세계와 꿈 깬 뒤의 세계가 두 가지였고, 장자와 나비가 분명히 별개의 물체이나 한 곳에서 변화작용하고 있는데 영원히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현실에서만 성립되는 이론이다. 만일 주관적인 근친(近親)에 국한하여 어디까지나 양자로 분립할 수밖에 없다면, 자기의식을 지속하면서 완전히 다른 물체가 된 꿈을 꾸거나, 장자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비가 되진 못했을 것이다.²²⁾ 호접지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

21) 유문영, 『꿈의 철학- 꿈의 미신, 꿈의 탐색』 하영삼 (역)(서울 : 동문선, 1993), p.240.

22) 박종호, 『장자철학』, (일지사, 1985). p95.

때, 장자는 현실 공간에서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현대인일 것이며, 자유로운 날개로 노니는 나비의 꿈은 무의식 상에서 본인 욕망의 표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동양에서는 꿈을 단순히 고대 서양처럼 신의 계시나 어떠한 일의 전조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에 또 다른 자아의 표현의 통로로 여겨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서양미술에서의 꿈의 해석

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듬해 1920년 경, 2차 세계대전 발발직후까지 약 20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위적인 문화예술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초현실주의라는 사조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잠재의식의 세계를 밝히는 심층심리학, 꿈의 해석 토렘과 터부 등에 관한 프로이트의 연구는 심리학은 물론이고, 예술·종교·문화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초현실주의는 본질적으로 문학의 시(時)에서 발생하여 곧 문학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영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주관주의라고 하는 낭만주의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새로운 영감을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분석에서 끌어내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²³⁾ 토대로 인간의 정신해방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은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로서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것에서 떠나 무기력으로부터 대중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은 파괴되고 붕괴된 세계를 답사

23) 다다이즘(Dadaism) : 불어의 'DaDa'에서 나온 것으로 우연의 산물. 즉,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다이즘은 1916년에서 1922년까지 유럽지역에서 성행했던 문학예술운동으로 다다이스트들은 기존 예술의 역할에 대한 부정과 함께 어떤 고유한 원칙도 없이 '무'에 대한 부정의 미, 부정의 철학, 무관심의 이념을 주장하였다.

하는데 그러한 귀결로 무의식적 욕구불만을 파헤친 프로이트 이론과 만나게 된 것이다.²⁴⁾

초현실주의의 목표는 그들이 인간성의 진정한 근원으로서 주장하였던 환상, 꿈, 상상 등 극대화 된 현실세계를 열어 보임으로서 미술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고 제한적인 문화 양식에 대항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작품의 특징은 환상적인 기술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초현실주의 회화는 프로이트가 말한 소위 <꿈의 작업>이라 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순적 요소를 병렬 시킨 것, 들이나 그 이상의 물체의 이미지가 응축된 것, 상징적 가치를 가진 물체를 이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²⁵⁾

1924년 초현실주의 운동을 야기한 『제 1차 초현실주의의 선언』에서, 초현실주의라는 개념을 새로운 예술적 이데올로기로 정립하고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한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²⁶⁾은 이 선언에서 초현실주의를 『남성명사, 마음의 순수한 자연현상으로서,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입으로 말하듯 붓으로 쓰는,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사고의 참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또 이성에 의한 어떤 감독도 받지 않고 심미적인 또는 윤리적인 관심을 완전히 떠나서 행해지는 사고의 받아쓰기.』²⁷⁾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부터 초현실주의자들은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기 위해 상상, 꿈, 환각의 세계를 펼쳐 나가게 된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우연과 무의식의 세계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다양한 회화적 기법을 창출하여 환상과 경험의 영역을 더 없이 확충시켰다.

흡수성이 적은 종이를 물감에 흘려 놓고 그 종이를 접에 눌러서 물감이

24) Yvonne Duplessis, 『초현실주의』, 조한정 (역), (서울:탐구당, 1983), p.152.

25) Nikos Stangos, 『현대 미술의 개념』, 성완경 김안례 (역), (문예출판사, 1997). p203.

26) 앙드레 브르통 (1896-1966) : 프랑스의 시인, 초현실주의의 주창자이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 꿈, 무의식을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발로로 보는 시의 혁신운동을 궤도에 올렸다. <문학>등 기관지 발간, 작품<나자>등이 있다. 전쟁중에 의료 보조원으로 활동한 후에 루이스 아라공, 필리프 수포와 함께 다다의 대변격인 정기간행물 『리테라튀르』(1919-1924)를 공동 편집했다.

27) Andre Breton, 『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역 (역), (서울:성문각, 1978), p35.

만든 우연적 형태를 새롭게 찍어내는 도밍게스의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재질감이 풍부한 물체의 표면에다 종이를 얹어 연필로 문질러서 표면의 재질감이 만드는 형체를 그대로 베껴내는 에른스트의 프로타주(Frottage), 이질적인 갖가지 물건을 직접 갖다 붙이는 콜라주(Collage)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66년 브르통의 사망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이 서서히 막을 내리나 20세기 등장한 다른 운동에 비해 가장 폭 넓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예술 운동이며, 꿈, 환상,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어 현실과 초현실의 접점을 시도하여,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세계를 확장하고자 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학과는 구별되며 인간의 정신적 해방에 따른 보다 폭 넓은 예술 세계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²⁸⁾

28) William S, Rubin, 『Dada, Surrealism, and Their Heritag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8 , p.64.

3. 본인 작품 분석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은 현실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자 한다. 그리고 한번쯤은 날아가는 새를 보면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중에 본인도 삶에 지쳐 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충족을 새처럼 날개를 달고 어딘가 날고 싶다는 바람이 남들보다 컸었는지,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현실에서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만들어 내는 꿈을 꾸며, 알 수 없는 세계에 빠져 그 실체를 바탕으로 본인의 꿈을 소재로 작품으로 옮겨 표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면세계는 꿈을 통해 잠재의식 속의 상상과 공상을 포함한 자유의 세계로 펼쳐나간다. 우리 마음 속의 깊은 곳에 깔려있는 생각이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잠재의식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꿈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 한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발명, 발견, 창작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잠재하고 억압되어 있던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경향이며, 우리가 대낮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의식할 수없는 잠재의식, 즉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 하며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을 때 훌륭한 음악이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발견이 되기도 하며 불후의 시나 회화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에서 보여 지듯이 꿈의 작업이나 다른 시각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징들을 일종의 예술적 형태 즉 그림, 조각, 시, 음악,춤 ,따위로 표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제까지 꿈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의 창조적인 예술로 표현 가능한 꿈의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 또한 꿈을 작품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잠재 의식과 꿈의 상징성을 시각화 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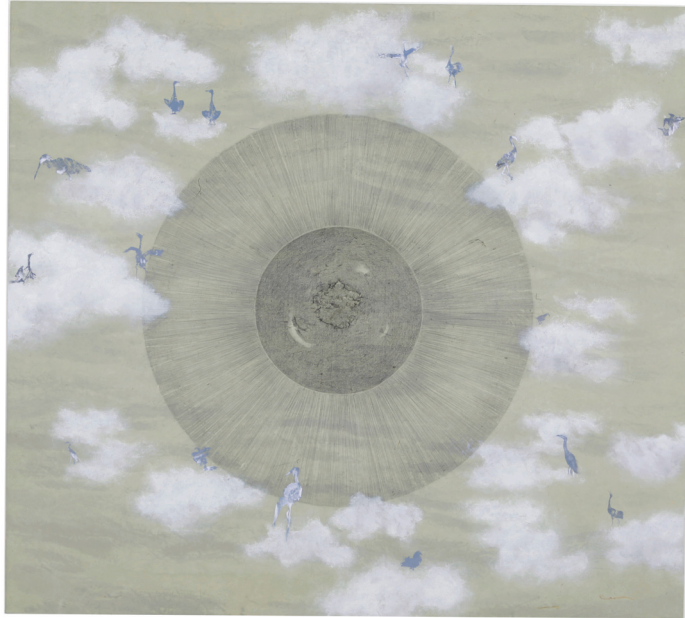
【작품 1】 Fly to the Dream 75 × 90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1】은 “나는 날고 있다.” 라는 표현을 뚜렷하게 날개의 이미지로 보여주며, 말로는 표현 할 수 없지만 말하고 싶은 심정 표현을 본인의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미지의 공간에서 항상 새가되어 어딘지 알 수 없고, 실존하지 않은 세계에서 날개가 지쳐 가는 줄도 모르고 반동적으로 마냥 자유롭게 한 없이 날고 있는 과정을 바탕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또한 꿈속에서 만들어가는 공간의 내면세계를 표출해내려 하고 있는 상징적 무용이다.

본인 작품들에 그려진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꿈 속에서는 미지의 어두운 영역들과 알 수 없는 꿈속의 풍부한 단상들을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그려내고, 때로는 이러한 단상들을 본인이 보호하려 하고 있고, 무의식은 의식의 파편들이 유영하듯 떠다니고 있다. 천공의 공간으로 펼쳐진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의 경계에는 구름이 흐르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고, 낙타도 있고, 권총도 있고, 때론 거울도 있다. 화면에 펼쳐진 형상들은 본인이 현실 속에서 지각한 것들이지만 이 형상들은 본인의 마음속으로 옮겨

지고 일단 마음의 영역으로 변하여 심적 사상의 궁극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기는 하나 이미 잠재의식에 동화되어 있는 내면의 한 켠에 숨겨진 사상으로, 무의식에 동화된 경험은 꿈에서 그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본인의 모티브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새와 날개, 낙타, 거울, 등은 모두 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날고 싶다는 본인의 의식적 대체물이다.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루스가 미노스 궁을 도망치며 낮게 날아야한다는 약속을 깨고 태양을 향해 높이 날다 뜨거움에 타죽었다는 신화 속이야기처럼 날개를 다는 것은 날고 싶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원형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꿈꾸는 천공의 성 라퓨타나 비행신화들처럼 본인의 화면은 인간의 뇌에 화석처럼 감춰버린 신화의 원형으로까지의 확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작품 2】 Fly to the Dream 103 × 93cm 장지혼합재료 2009

또한, 【작품 2】은 확장된 동공의 눈동자는 무의식 속에서도 선명한 심상을 기억해 내는 섬광과도 같은 정신이다. 이 눈동자는 전지전능하여 화면전체에 섬세하게 흩어내고 있는데, 동양화의 삼원법과 같이 보이지 않은 자연을 마음으로 관통하듯이 세계를 관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눈동자는 가장 완성된 원형, 양의 극치인 태양의 또 다른 이미지이기도 하다. 신사에서 등근 거울을 걸고 태양신께 제사를 올리듯이 청동기 거울이 신과의 교접물로 신성시되었음을 보아도 본인의 의식이 절대적 실재에 대한 갈구와 염원으로까지 발전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인의 화면은 고대의 신화, 전설, 그리고 원시적인 제의에 얼마간의 원형을 그려내고 있고, 이는 권총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려 했다. 본인은 기억 속에 깊숙이 침잠해 본인도 기억 할 수 없는 스토리이지만 권총은 그 조형성에서 열쇠와 오버랩 되고 있다. 권총과 열쇠는 남성적인 성(性)의 상징과 강한 힘일 수도 있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 선의 확장된 하나님

에 대한 회구, 전능한 신계로 나아가는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총과 새, 낙타, 거울의 모티브들의 사용은 동일한 이미지들을 반복시키는 상사놀이를 통해 복제물간의 변화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주제들이 여러 반복할 때 얻게 되는 시각적인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초현실성은 바탕에 칠해 겹쳐진 색은 바탕 효과로 인하여 더욱 강조된다. 소녀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겹쳐진 색들은 개개의 색들이 분명 본인의 존재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로줄을 형성하며 그어진 선 처리는 컴퓨터 코드들의 조합된 흐름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어 시각적으로 분명 본인의 존재성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때론 실험성이 돋보이는 거친 마티에르의 효과로 드러낸 불완전한 이미지는 흔들리는 예민한 심리적 반응을 끌어내려 한 것이다. 또한 뚱뚱 떠다니는 안료의 덩어리들은 부유하는 의식의 한 조각들을 표현하듯 현실의 공간이 아닌 정의할 수 없는 의식속의 공간임을 암시하려 했다.

본인의 작품은 신비적이며 초현실적인 꿈속의 표현이지만 성긴 여백으로 동양화의 정신성과 작가 자신으로 은유된 모티브로 깨어있는 화면세계를 표현한다. 이는 장자의 호접지몽과 상통한다 할 수 있는데,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았는데, 깨어나니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자인지 꿈도 현실도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물일체의 절대경지로 여기는 호접몽의 몰아일체의 경지는 삶과 죽음의 구별, 사물과 나의 구별은 상대적인 개념 일뿐 무의미함을 제시한다 하겠다. 이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며 색과 공이 하나인 색즉시공의 불교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본인의 여린 듯 조용한 작품이 가진 내용과 상징성은 꿈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강한 의식의 선명함처럼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는 모두 바탕을 완성 한 다음 일반 종이에 이미지들을 스케치하고, 오려서 크레파스와 4B, 오일 파스텔, 색연필, 을 사용하여 화면에 공간

위치를 선정한 다음 붙인 것이다. 몇몇의 일부분은 바탕자체에 그려 넣은 것도 있으며, 바탕을 칼로 아주 미세하게 흠집 내어 도형적인 형태부분을 뜯어서 (직사각형, 사각형, 원형, 삼각형 등의 형태들은 미지의 공간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낸 것이며, 본인의 드러낼 수 없는 공간의 실체를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보이려 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통로 가는 매개체, 꿈 소망 이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대변되는 이미지들이다) 그 부분에 그려 넣기도 하였다.

【작품 8】 【작품 9】 【작품 10】 의 바탕은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본인도 모르는 형상들을 화면속인 장지위에 분채와 아크릴,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마르고 덧 칠하는 과정을 수십 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낸 표현기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8】 【작품 10】 【작품 11】 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화면전체를 떼 내어 직선만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얇게 잘라 백지인 장지위에 다시 퍼즐을 연상케 하는 형식으로 바탕에 그렸던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직선만을 이용하여 붙인 것이다. 이렇게 바탕에 심의를 기울여 하는 이유는 최대한 꿈속의 표현을 예민한 심리적 반응을 끌어내고자 하는 타인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며,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부분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3】 Fly to the Dream 92 × 53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3】에서 보이는 날개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얇은 선은 2B로 가볍게 그은 삼각형은 항상 자유롭게 날고 있지만 미지로부터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탕에서 군데군데 2B로 직선만을 사용한 검은 그림자들은 기억하기 싫은 흔적들을 애써 깨끗이 지우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일부분은 2B를 사용한 다음 손을 이용하여 문질어서 지우려는 흔적들을 남겨두었다.



【작품 11】 드러낼 수 없는 실체 75.3 × 100.5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11】는 1983년 엄마뱃속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아온 나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있는 심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런 비추어 부는 의미로 거울의 이미지를 작품에 넣게 되었다. 이 작품은 꿈에서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의 무수한 생각들이 겹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나의 의지대로 마음껏 표현해보았다. 또한 작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는 나의 이런 현실로부터 복잡하고 어지러움 심정을 해석해주고 정리해주는 인도자를 그려내려 하였다.



【작품 8】 드러낼 수 없는 실체 120 ×73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8】은 【작품 1】과 【작품 2】에서 보이는 날개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본인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드는 본인의 감정 표현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바탕에 보여 지는 왕관과 바탕의 질감 표현과 날개 중심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구슬속의 총이 덧붙여 드러내려 해도 드러낼 수 없는 본인의 심정을 나타내 표현하였다. 바탕에서 보이는 왕관들은 의식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비추어 보지 못한 욕망적인 부분을 무의식의 영역에서 왕비가 되어 한없이 날면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내적인 모습을 테두리 안에 꼭꼭 감싸고 무엇인가 화려하게 보여 지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꿈속에서 보았던 감정의 느낌으로 옮겨 넣었다. 날개 가운데 있는 구슬은 나의 속마음 표현하였고, 총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남성적인 성의 상징과 강한 힘 일 수도 있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 선의 확장된 하나님의 대한 희구, 전능한 신계로 나아가는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총은 나의 자유롭고자하는 희망과 소망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있다. 바탕의 왕관 그림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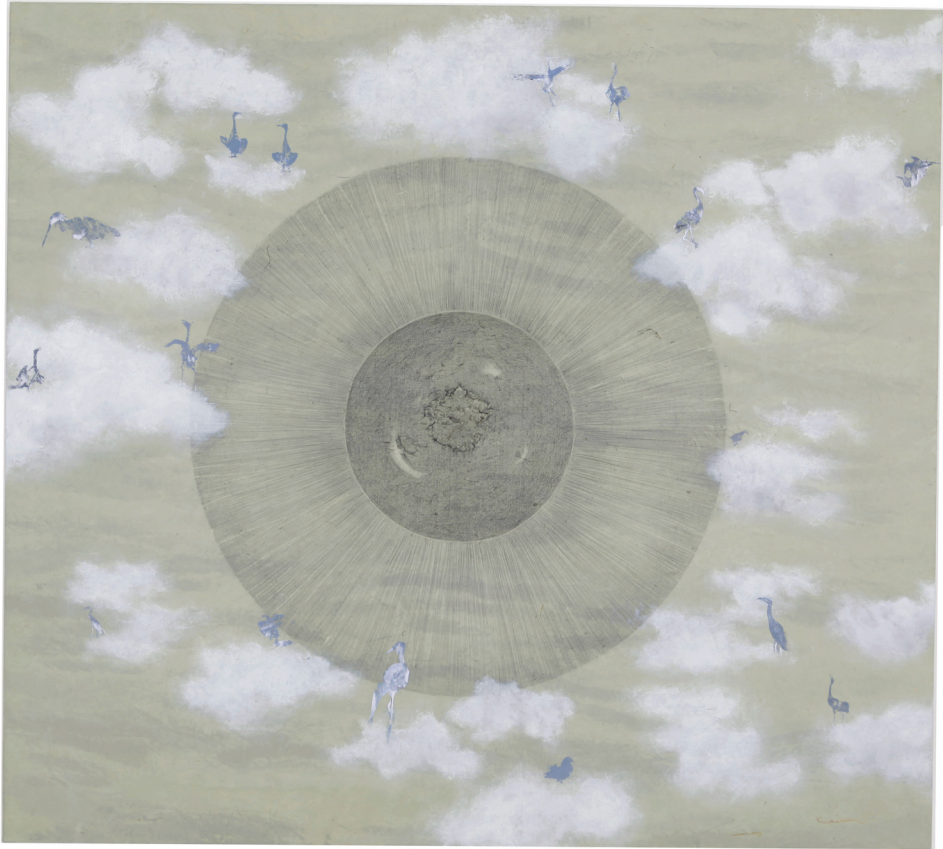
작 품 목 록

- 【작품 1】 Fly to the Dream 75 × 90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2】 Fly to the Dream 103 × 93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3】 Fly to the Dream 92 × 53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4】 드러낼 수 없는 실체 162 × 130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5】 드러낼 수 없는 실체 40 × 40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6】 드러낼 수 없는 실체 30 × 30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7】 드러낼 수 없는 실체 30 × 30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8】 드러낼 수 없는 실체 120 × 82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9】 드러낼 수 없는 실체 60 × 35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10】 드러낼 수 없는 실체 93 × 92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11】 드러낼 수 없는 실체 75.3 × 100.5cm 장지혼합재료
- 【작품 12】 드러낼 수 없는 실체 70 × 50 cm 장지혼합재료

작 품 도 판



【작품 1】 Fly to the Dream 75 × 90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2】 Fly to the Dream 103 × 93cm 장지혼합재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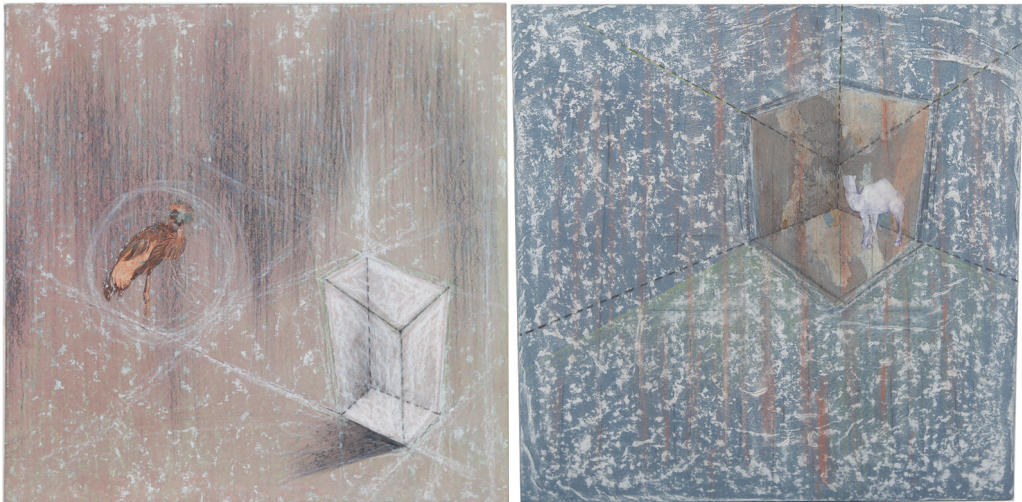
【작품 3】 Fly to the Dream 92 × 53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4】 드러낼 수 없는 실체 162 × 130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5】 드러낼 수 없는 실체 40 × 40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6】 , 【작품 7】 드러낼 수 없는 실체 30 × 30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8】 드러낼 수 없는 실체 120 × 78cm 장지혼합재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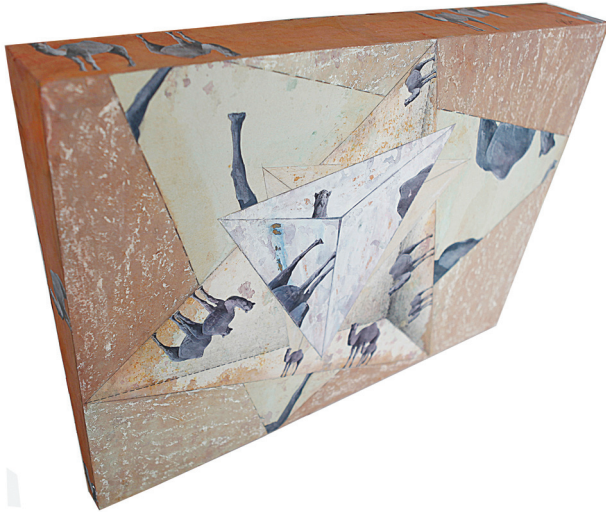
【작품 9】 드러낼 수 없는 실체 60 × 35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10】 드러낼 수 없는 실체 93 × 92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11】 드러낼 수 없는 실체 75.3 × 100.5cm 장지혼합재료 2009



【작품 12】 드러낼 수 없는 실체 70 × 50cm 장지혼합재료 2009

Ⅲ. 결 론

꿈은 꿈을 꾸는 사람 본인의 의식세계와 평소 인지 할 수 없는 무의식과의 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개인이 지닌 사물에 대한 상징을 통해 꿈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서 억제되고 불가능한 욕망들이 꿈에서 발현된 상(Image)을 소재로 하여 작품으로서 표현함으로써, 이상적인 행복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개인적이고 다양한 꿈의 세계를 시각화하며 그러한 작품을 통해 무의식의 자아를 다시금 확인하고 삶의 의미와 이상을 찾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단지 신의 계시나 예지로만 여겨지던 고대와 달리 근대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와 분석심리학의 융의 연구를 접함으로써, 꿈이 단순히 꾸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무의식이 본인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1920년대의 서양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를 통하여 꿈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미술적으로 접근해 보았고, 동양에서 꿈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을 연구하여, 본인의 작품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본인 작품에서의 날고 싶어 하는 무의식과 권총, 새, 거울 등의 여러 가지 상(Image)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여 내재된 자아가 원하는 이상과 억제된 욕망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단순히 감성에 치우친 작업이 아니라, 꿈에서 드러나는 상징적인 대상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무의식을 시각화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상징적 기호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내면을 바라보는 시각 갖춤으로서,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며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종현, 『신비한 꿈의 세계』, (서울: 범조사, 1989)
- 유문영, 『꿈의 철학- 꿈의 미신, 꿈의 탐색』 (서울 : 예술출판사, 1994)
-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일조각, 1981)
- Andre Breton, 『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역 (역), (서울:성문각, 1978)
- Calvin 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지경자(역), (서울:홍신출판사 , 1994)
- E. Fromm, 『꿈의 정신분석』, 한상범 (역), (서울: 정음사, 1977)
- Herbert read, 『현대 미술의 원리』, 김윤수(역) (서울:열화당, 1981)
- Nikos Stangos, 『현대 미술의 개념』, 성완경 김안례 (역), (문예출판사, 1997)
- S.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역) (열린 책들. 1997)
- S. 프로이트, 『정신분석 입문』, 이명성(역) (홍신문화사, 1987)
- Strephon Kaplan Williams, 『꿈의 작업』, 노예숙, 오명선 (역), (1988)
- Yuonne Duplessis, 『초현실주의』, 조한정 (역), (서울:탐구당, 1983)
- Verena Kast, 『꿈 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 원석영(역) (프로네시스)
- William S, Rubin, 『Dada, Surrealism, and Their Heritag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8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nside World to be revealed in the Space of Dream

- Centering around My Work -

Jung, Han-Na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civilization offered much convenience and much benefit to us, and it is developing and changing endlessly now. In this course, modern society achieved release from material poverty, but it brought forth adverse effect to be mental poverty. Due to this adverse effect, moderns came to feel isolation sense and alienation sense.

This thesis is to study and analyze how solitude and loneliness of human beings which are due to the vice of modern material civilization are revealed in the dream to be the space of unconsciousness which transcends actuality and the course to express inside world to be revealed in my dream as work.

I thought that dream which has been repeated since childhood reveals potential inside which cannot be recognized at ordinary times. Desire to want to take off and cast heavy load in actuality is revealed as ego which is floating in dream, and desires which have been

surpressed at ordinary times show as various fragmentary thoughts in dream. I thought utilizing this dream as the material of work as the expression of my surpressed desire. And, through such work activity, I tried to make the course to visualize the most original subconsciousness of human beings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as the path to express inside world by concrete study.

Firstly, I studied dream which is regarded as unknown world which doesn't have relation with one's own will with objective meaning, approached dream from the compensational psychological side of independent subconsciousness with one's own will and conscious goal on the basis of opinion of Freud and Jung out of various theories for dream as to with which meaning dream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time, and explained symbolical nature that dream has.

Secondly, I examined how pictorial expression which makes dream as material has been made. First, I tried to find the original stream in the history of China as to how viewpoint to look at dream in the East has been unfolded, and I analyzed how Orientals have accepted dream through folklore related to dream and painting works. And, I studied how dream was utilized as pictorial material through the unfolding course of surrealism which develop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dream of Freud in the West and the techniques.

Lastly, so as to explain how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s for this dream were revealed in my work, I tried to find symbolical nature of wing, unknown space, and various images to go past by which are revealed in dream and relation of inside world, and I examined work

contents and formal feature closely by analyzing and studying my work.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create the new discovery of inside world through getting out of dream which was used as work material vaguely by analyzing and studying my work activity to make dream as subject matter deeply.